편집후기

○…왜 이렇게 안타까움을 더해 줄까?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해 공휴일도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불조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인가! 입술이 트고 오한이 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잠시도 게으름이 있을수가 없다. 그런데도 火災는 줄지 않으니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왠일일까?

○…科學的인 豫防活動을 한다는 美國의 경우도 해마다 火災發生件數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때 다소 그 마음이 안도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불조심에 신경을 쓴다면 하고 아쉬움이 앞선다.

보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號를 거듭할수록 편집상의 어려움이 많다. 알찬 良書를 위해 나름대로 努力은 하고있으나, 보는 이의 評價가 두렵기 때문이다. 協會報의 發展을 위해 더한 채찍질을 가해주기 바란다.

알리는 말씀

當協會는 國內 最初로 火災豫防을 爲한 啓蒙文化映畵를 製作, 全國的으로 巡回上映을 벌이고 있읍니다. 上映에 따른 모든 費用은 無料입니다.

각 職場이나 共同住宅 等에서 上映을 願하시면 아래 電話 번호로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서울 交	㉖ 4106—10 ㉕ 0082—5 ㉕ 1695—8 직 ㉗ 4127		
	釜山	㉒ 7634, 4367 ㉓ 4807	大邱	④ 4845 ④ 7144
	仁川	② 1446	大田	② 2807
	全州	② 2655	光州	② 2279 ② 3087
	春川	2367	淸州	3638
	馬山	2548		

火災安全點檢

(通巻 5號)

登錄番號 마 301

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

〈非賣品〉

發行人 吳 琳 根

編輯人 金 雲 淑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

서울 中區 草洞 21—9

電話 交 ㉖ 4106—10

㉕ 0082—5